

어떻게 죽여드릴까요

S#1. 회상. 과거 / 아파트 복도 — 밤

끝에 불 켜진 문. 옆 책상 위 커피잔, 어머니와의 사진. 열여섯 살 다예가 문 앞에 선다.
문 너머에서 소리.

아버지(V.O) (낮고 끊기는 목소리) ...이렇게 사는 게 뭘 의미야. 당신이랑 나랑.

어머니의 대답은 없다. 침묵이 더 무겁다.

아버지(V.O) 그냥 다 끝내버릴까.

다예가 손잡이에 손을 올린다. 멈춘다. 다시 소리. 물 쏟아지는 소리. 욕조. 침방. 그리고
조용해진다.

다예가 손잡이에서 손을 내린다. 벽에 등을 대고 앉는다. 무릎을 당긴다. 눈을 뜬 채로
기다린다.

복도 불빛이 깜빡인다.

얼마 후 —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된다. 작고 반복적인 것. 아버지의 울음소리.

다예의 눈이 가늘어진다. 눈물은 없다.

경찰차와 응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다예는 멍하게 앞만 바라볼 뿐이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진다.

블랙아웃

타이틀: 어떻게 죽여드릴까요

S#2.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새벽 5시

형광등 하나 깜빡인다. 좁은 칸막이, 낡은 헤드셋.
다예(29)가 앉아 있다. 화면엔 수신 번호만.

다예 네,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 다예의 펜이 움직인다. 주소, 시간, 방법. 항목별로.
손목 안쪽에 흉터 — 오래된 것.

이안(V.O) (울먹이며) 이제 너무 지쳤어요. 오늘 밤에 그냥...

다예 (낮고 안정적으로) 그렇군요. 지금 어디 계세요?

통화가 끊긴다. 다예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본다. 깜빡이지 않는다.
서랍에서 어머니와의 사진을 꺼냈다가 닫는다.

S#3.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낮

동료 지은(27), 통화를 마치고 한숨.

지은 오늘만 네 번째야. 진짜 너무 힘들다...

다예가 지은의 붉은 눈가를 본다.

다예 (약간 부자연스럽게) 고생했어. 커피 마실래?

지은이 살짝 당황한 미소. 다예도 웃는다. 0.3초 늦게. 지은이 돌아서면 다예가 스마트폰을 꺼낸다. 검색 이미지들 — '슬픈 표정', '공감하는 얼굴', '우는 사람'. 거울을 보며 눈가를 찌푸려보다 이내 무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본다.

S#4. 아파트 골목 / 밤

어두운 골목. 이안의 주소. 창문에 불빛, 안에서 움직임. 살아있다. 다예가 창문을 향해 손을 오래 들었다가 내린다. 돌아선다.

S#5.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심야

형광등이 평소보다 길게 깜빡인다. 전화가 울린다.

이안(V.O) (떨리는 목소리)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오늘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펜을 쥐려다 멈춘다. 이안이다.

다예 지금 어디세요?

주소를 적는다. 헤드셋을 벗고 일어선다.

다예 (흔жат말처럼) 찾아가야겠다.

S#6. 건물 옥상 / 심야

이안(18)이 난간 가까이 서 있다가 돌아본다.
눈이 붓고, 입술이 터져 있다. 오래된 상처도 있다 — 목에, 손목에.

이안 누... 누구세요?

다예 (무표정하게) 아까 전화했던 상담원이에요.

다예가 천천히 다가가 멈춘다. 이안의 손, 눈을 본다.

다예 어떻게 죽여드릴까요?

침묵. 바람.

이안 뭐라고요?

다예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이안의 눈이 흔들리다 울기 시작한다. 다예는 기다린다.

이안 (오래 울다가, 겨우) ...개네한테 가고 싶어요. 죽은 상태로.

다예 개네요?

이안 (울면서, 조각조각) 가해자들이요. 그리고 절 버리고 방관한 친구들. 다섯 명이요.

다 알아요, 주소도 얼굴도.

이안이 휴대폰을 내민다. 화면엔 다섯 개의 이름, 주소, 사진.
이안의 눈이 다예를 본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

이안 그냥 죽여주면 돼요. 순서대로.

다예의 눈꺼풀이 0.1초 내려갔다 올라온다. 사진을 찍는다.

S#7. 다예 자취방 욕실 / 새벽 (살인 1 이후)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른다.

다예가 손을 씻는다.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세 번. 물이 열린 분홍빛으로 흘러내려간다.

거울을 본다. 손이 멈춘다. 연습하지 않았는데 —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손가락 끝으로 입꼬리를 건드린다. 내려가지 않는다.

수도꼭지를 잠근다. 거울 속에 — 다예의 뒤편에 이안이 서 있다.

다예가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다시 거울을 본다. 거울은 다예 혼자뿐이다.

S#8.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몇 달 후 / 낮

형광등이 깜빡인다. 유선전화가 오래 울린다. 수신인: 없음.

다예가 받는다.

이안(V.O) (낮고 선명하게) 나야. 기억하지?

다예가 수화기를 떼어 바라보다 다시 귀에 댄다.

다예 ...죽었잖아.

이안(V.O) 응. 죽었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S#9. 다예 자취방 / 밤 (이안 — 첫 직접 등장)

다예가 불을 켜다. 테이블 건너편 의자에 이안이 앉아 있다.
이안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같다. 목의 상처도, 터진 입술도 — 그대로.
다예가 멈춘다.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안 놀랐어?

다예 ...아니.

이안 거짓말.

이안이 테이블 위 다예의 메모장을 본다. 다예의 시선이 따라간다.

이안 나는 너 알아, 박다예. 상담 기록만 본 게 아니야. 4년 전 육조도. 열여섯 살 때 복도도.

다예의 손이 소매를 내려 손목을 덮는다.

이안 왜 하필 나한테 와줬는지도 알아.
너 그날 밤, 옥상에서 날 봤을 때 — 느꼈잖아. 처음으로.

다예가 대답하지 않는다. 이안이 메모장 위 목록을 가리킨다. 다섯 개의 이름.

이안 둘만 남았네.

다예 ...왜 나야.

이안 (조용히) 넌 살고 싶지 않잖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자유로워.

침묵.

이안 나 때문에 느낀 거, 그거 더 하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 다음 사람들.

다예 ...왜 직접 안 해.

이안 (쓴웃음) 자살자는 지옥으로 직행이야. 이미 거기 있거든. 근데 넌 아직
여기 있잖아.

침묵.

다예가 이안의 눈을 본다. 살아있을 때와 같은 눈.

이안이 사라진다. 의자만 남는다. 다예가 그 의자를 오래 본다.

S#10. 다예 자취방 욕실 / 새벽

거울 앞에 선 다예. 장갑을 꺼낸다. 오래 들고 있다가 끼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는다. 불을 끈다.

S#11. 살인 2 — 아파트 / 밤

목록의 두 번째. 전 직장 상사 김모씨(52)의 집.
현관 앞. 다예가 누른다. 문이 열린다. 다예의 얼굴 — 아무것도 없다.
컷.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 소리. 의자 넘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다예의 숨소리, 고르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

S#12. 다예 자취방 욕실 / 새벽 (살인 2 이후)

거울 앞.
다예가 얼굴을 본다. 입꼬리를 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냥 본다. 올라가지 않는다.
눈이 커졌다가 빠르게 돌아온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수도꼭지를 튼다. 물이 흐른다. 이번엔 깨끗하다.
다예가 물을 손으로 담아 얼굴에 끼얹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을 다시 본다. 아무것도 없다.

S#13.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낮

지은이 다예 옆에 앉는다.

지은 너 요즘 좀 달라 보인다?

다예 어떻게?

지은 모르겠어.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

지은이 자리로 돌아간다. 다예가 손목 흉터 위에 손을 올린다. 느껴지지 않는다.
퇴근 무렵. 지은이 나가려다 멈춘다.

지은 (조심스럽게) 다예야. 너 괜찮아?

지은이 다예의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나간다. 온기가 코트 너머로 전해졌다.
잠깐이었다.
다예가 그 자리를 손으로 덮는다.

S#14. 다예 자취방 / 밤

이안이 다예 뒤에 서 있다. 다예는 거울로 이안을 본다.

이안 (느긋하게) 지은 씨, 요즘 너 너무 무서워하더라.

다예 ...무슨 소리야.

이안 봤거든. 퇴근하고 나서 뭔가 검색하던데. 직장 내 이상 행동 신고.
가까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일 생각하면.

다예가 거울을 돌아본다. 이안이 없다. 코트를 벗는다. 잠시 멈춘다.
메모장을 펼친다. 목록을 본다. 세 번째 이름에 줄을 긋는다. 두 개가 남는다.

S#15.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다음날 낮

지은이 먼저 와 있다. 눈이 마주친다.
지은의 눈에서 처음으로 — 두려움. 아주 작은 것.
지은이 먼저 눈을 돌린다.
다예가 메모지를 펼친다. 적지 않는다.

S#16. 살인 3 — 주택가 골목 / 밤

목욕의 네 번째. 회사 동료 박모씨(38).
골목 끝. 다예가 기다린다. 손에 장갑. 숨소리, 없다.
발소리. 남자가 걸어온다. 다예가 걸음을 맞춘다.
이번엔 카메라가 따라간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 끝으로 들어간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
남자의 목소리 — 잠깐, 뭔가 말하려다. 끊긴다.
다예의 손. 장갑 낀 손가락. 힘이 들어간다.
바닥에 무언가 무거운 게 쓰러지는 소리.
다예가 골목 입구로 돌아온다. 혼자.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는다.
불빛 아래 얼굴 — 아무것도 없다. 입꼬리도, 눈물도, 떨림도.
멈춘다. 손바닥을 내려다본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S#17. 다예 자취방 욕실 / 새벽 (살인 3 이후)

거울 앞.
입꼬리 — 올라가지 않는다. 네 번째.
다예가 거울을 오래 본다. 눈을 깜빡인다. 또 본다.
처음으로 — 연습하기 전의 얼굴이다. 아무것도 없는 얼굴.
다예가 수도꼭지를 튼다. 물을 보다가 잠근다. 물을 끈다.

S#18. 자살예방센터 상담실 / 야근

전화가 울린다.

 중년여성 (V.O) (감정 없이, 차분하게) 죽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못
느끼게.

다예가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뚫다.
아무것도 못 느끼게.

다예 (천천히) ...지금 어디 계세요?

S#19. 빌라 앞 / 밤

중년 여성의 집. 창문에 불빛, 여자 혼자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다예가 장갑을 꺼낸다. 실루엣을 본다. 손이 내려간다.
목록에 없는 사람이다.
장갑을 주머니에 넣는다. 돌아선다.

S#20. 다예 자취방 / 새벽

이안이 다예와 나란히 앉아 있다.

이안 (차갑게) 오늘은 못 죽었네?

다예 ...그래.

이안 이제 그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다예가 대답하지 않는다.

이안 그럼 이제 뭐가 남아?

이안이 사라진다.
다예가 서랍을 연다. 어머니와의 사진. 오래 든다.

처음으로 —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린다.
서랍에 다시 넣는다.

S#21. 한강변 카페 / 낮

다예 혼자. 커피가 식어간다.
창밖 커플이 싸운다. 빵을 치고, 울고, 서로를 잡는다. 다예가 본다.
손목 흉터 위에 손가락을 올린다. 느껴지지 않는다.
커피를 집으려다 그냥 일어선다.

S#22. 다예 자취방 / 밤

이안이 다예 맞은편에 앉아 있다.

다예 솔직하게 말해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느껴져?

이안 (짧은 침묵) ...왜?

다예 여기서는 자꾸 느껴지거든. 요즘.

이안이 다예를 바라본다. 오래.

다예 거기 가면 어머니 볼 수 있어?

이안 (천천히) ...거기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다예가 메모장을 본다. 마지막 줄 — 자살자 = 지옥. 볼펜으로 천천히 줄을 긋는다.
그 글자를 한 번 더 읽는다. 메모장을 덮는다.

다예 (아주 조용하게) ...가는 방법은 알아.

이안의 눈에서 무언가 지나간다. 다예는 보지 못한다.
주머니 속 수면제 병을 손으로 감싼다.

S#23. 다예 자취방 / 밤 — 정리

다예가 자취방을 정리한다.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는다.
서랍을 연다. 어머니와의 사진.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수면제 병도.
거울 앞. 입꼬리를 올려본다.
아무것도 없다.
불을 끈다.

S#24. 자살예방센터 옥상 / 새벽

다예가 난간 앞에 선다.
이안이 옆에 서 있다. 다예는 이안을 보지 않는다.
수면제 병을 꺼낸다. 어머니 사진도.
잠깐 본다.
뚜껑을 연다. 손바닥에 쏟아 물 없이 넘긴다. 사진을 쥔 채로.

이안 (부드럽게) 잘 생각했어. 거기 가면 어머니도 있어.

도시의 불빛. 서로를 잡던 커플. 지은의 눈에 있던 두려움.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차갑다.
어머니의 사진이 바람에 날린다. 다예가 잡으려다 놓친다.
난간에서 한 발 물러선다. 발이 무겁다.
무언가 퍼지고 있다.

다예 (아주 조용하게) ...살고 싶어.

이안이 다예를 바라본다. 오래.

이안 (낮게) ...이미 늦었어.

다예의 무릎이 꺾인다. 손이 난간을 잡으려 한다. 닿지 않는다.

S#25. 추락하는 공간

다예가 떨어진다. 아래는 끝이 없다.

눈이 열린다 — 손목 흉터. 지은의 두려움. 날아간 어머니의 사진. 자살자 = 지옥.

다예의 입이 움직인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처음으로, 연습하지 않은 얼굴.

눈물이 뺨 위로 올라간다. 중력 반대 방향으로.

S#26. 자살예방센터 옥상

이안이 옥상에 서 있다. 혼자.

아래를 내려다본다. 오래 내려다본다.

다예가 서 있었던 자리에 떨어져 있는 수면제통

이안의 손 — 처음으로, 떨린다.

고개를 든다. 도시의 불빛. 바람.

이안의 얼굴 — 처음으로, 연습하지 않은 얼굴.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

살아있을 때 지은이 다예 어깨를 두드리던 온기 — 그게 무엇인지 이안은 알았을까.

이안이 천천히 사라진다. 연기처럼. 흔적이 없다.

옥상만 남는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인다.

꺼진다.